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노동조합 성명서

2020. 06. 08.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감염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대면 기말고사 시행 시 서울캠퍼스에만 약 1만 명의 학생이 통학하게 된다. 1만 명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서울캠퍼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양대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20-1학기 기말고사를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길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학생 사회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학 당국이 학생 대표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조속히 찾길 촉구한다. 대학 당국은 단과대학 발전계획 보고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생회와의 만남을 뒤로 미루며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대면 평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의 시급한 목소리도 듣지 않는 단과대학 발전 계획 발표라니 단과대학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었는가?

단지 스승이라는 지위로, 평가자라는 우위로, 공정 평가를 핑계로 학생과 학교가 안전을 위협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 감염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시험 감독을 맡은 교원과 직원 역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학교가 가진 감염 방지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온도계가 전부다. 학교를 전체를 위협에 노출하여 학교가 얻는 이득은 대체 무엇인가?

타 대학에서 발생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는 지속적인 계도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징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학생 사회의 공정 시험 캠페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사 일부 비양심적인 학생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승이 제자를 믿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우리 학생을 믿고 채용해주겠는가? 제자를 믿지 못해 대면 평가를 버리지 못하는 보직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불통으로 인해 일선의 담당자들이 학생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의 화살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직원 사회는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런 직원의 노력이 대학 당국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모두 수포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학생들의 우려와 요구를 경청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을 대학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간을 불모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